

산부인과 병원들 협박에 떨고있다

“불법 낙태수술 고발” 광고 게재 요구 전화

광주지역 일부 산부인과 병원이 낙태 수술을 발미로 한 협박에 떨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광주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돌며 불법 낙태수술 사실을 고발하겠다는 신고자들이 잇따르면서다. 광주시 의사회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 A산부인과 원장은 지난 3일 “불법 낙태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 측은 모 일간지 기자라는 신분을 밝힌 남성이 전날 병원을 찾아와 병원장·간호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뒤 다음날 이 같은 전화를 걸어 왔다고 밝혔다.

B 병원도 지난달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30~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병원장을 찾아와 “불법 낙태수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 측은 “우리 불법 낙태수술한 적이 없다.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라. 죄가 있다면 처벌 받겠다”며 남성을 돌려보냈다고 했다.

병원 측이 이미지 훼손 및 권한 오

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 동일 인물의 소행인지, 추가 피해 사례 등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어느 병원은 현금 수백만 원을 건넸다더라’는 식의 카더라식 소문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형 병원보다 중·소형 병원을 타지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A·B 병원은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는 차원에서 광주시의사회에 통보, 대응을 주문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즉각 금품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강경 입장이다.

전영성 광주시의사회 국장은 “최근 두 병원에 기사를 사칭한 사람이 찾아와 불법 낙태수술을 묵인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재발할 경우 광주시의사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수영대회’ 2명 기소 수사 마무리

강운태 광주시장은 “관계 없다” 결론

변호인측 “단순착오 사안 침소봉대 된 것”



벌초하고 묘비 닦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19일)을 앞둔 9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벌초를 한 뒤 5월 영령의 넋이 담긴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 정에서 빚어진 정보부증서 위조 사건이 김윤석(60)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유치위 소속 6급 한모(여·44)씨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강운태 시장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사건 마무리=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9일 김 총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조 정보부증서 파일을 받아 본 유치위 기획총괄팀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하고 광주시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김 총장은 공모해 국무총리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증서에 관한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 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하여도 정부가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국무총리·장관 각 시장에 대해서는 김 사무총장 등이 검찰조사에서 줄곧 시장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압수 수색 자료와 결재내용, 이메일, 통화 내역 등에서도 시장의 가담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강 시장은 검찰 서면조사에서 “유치신청서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을 뿐이고

보증서 위조에 대하여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변호인 측 반박=김 총장 등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 경미한 사안에서 발생한 단순착오, 경미한 사안에서 발생한 단순착오, 경미한 사안에서 발생한 단순착오”라며 “이 사건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 경미한 사안에서 발생한 단순착오, 경미한 사안에서 발생한 단순착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조된 정보부증서는 초안에 첨부된데 불과하고, 범죄 동기 또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라는 선의를 위해서이며, 김 총장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우스는 또 “국무총리실에서 바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유치결과 발표 전까지 정부 입장표명을 보류한 것은 조직적인 공모나 지시가 없었고, 실무자의 단순실수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라며 “FINA가 모든 경위를 파악하고도 광주를 개최도시로 결정된 것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지나치다”=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다소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김 총장과 6급 한 모씨를 구속 기소하는 것은 ‘행위 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압수 수색 자료와 결재내용, 이메일, 통화 내역 등에서도 시장의 가담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원침 (8883)



낙시배, 보트 추돌 5명 사상

9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산월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남쪽 해상 1km 지점에서 9.77급 낙시 어선이 2.53급 5인승 보트(FRP)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정모(64)씨와 또 다른 정모(여·68)씨 등 2명이 숨지고 동승자 이모(72)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보트에 5명이 탑승, 해상에서 보트를 멈춰 세운 뒤 낙시를 하던 중이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교도소 살인사건

살인혐의 수감자, 동료 재소자 때려 숨지게
재소자 관리 어떻게 했길래... 비난 목소리

교도소 안에서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 50분께 살인 혐의로 수감된 A(47)씨가 수용실 안에서 동료 재소자인 B(43)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수용실에는 모두 7명의 재소자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A씨가 주먹 등으로 B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

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정신을 잃어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 17분께 숨졌다.

B씨는 지난 2008년 친구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었다. 숨진 B씨는 강도와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에 수감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교도소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자제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밥값 빼돌려 배채운 어린이집 원장

전남경찰, 화순 40대 구속... 보조금 빼돌린 아내·처제도 입건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보육교사·운전기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원생 급식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보육시설 관계자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지원금을 어린이집 배반 불리는 ‘논란’ 어린이집 원장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 아내(42)와 처제(37)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안’을 이유로 기각하자, 다음날 영유아보육법 외에 보조금관리법 등을 추가로 적용해 재신청했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부인(42)과 화순에 어린이집 2곳, 광주 유치원 1곳을 운영하며 어머니(72)와 처제(37), 처남(40) 등 4명을 교직원이나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해 지난 2008

년부터 최근까지 국가에서 보조금 3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가 보육료를 부모에게 지원,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는 ‘아이사랑카드’를 보조금이 아닌, 자신의 수익금으로 여기는 ‘모랄헤저드’가 반영돼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검찰이 보조금 부정 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해 구속 수사 등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관할 자치단체의 지도·점검도 형식적이면서 허술하게 이뤄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술만 마시면 이웃 폭행男 철창행

○술을 마시고 이웃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결국 철창행.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진모(36)씨는 지난달 28일 밤 10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J식당에서 업주 손모(43)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수 차례에 걸쳐 만취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신청했던 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뒤에야 범행을 계속해 주민 피해가 잇따르자 추가 피해 사례를 찾아내 구속.

/최승렬기자 srchoi@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ah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

현장직 사원모집

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안정적인며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급여 : 1,800,000원
- 상여금 300%분할지급 (3개월 후부터)
-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 상여금 400%
- 근무시간 08:30~17:30 + 3시간 연장, 토요일 특근
- 여자사원은 35세 이하(경력자 40세미만 까지)
-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각1부
- 근무지 : 하남 7번도로, (주)금호전기

초보자가능, 즉시근무, 장기근무가능, 적임원정중.

주식회사 엠지
TEL. 062-681-5588 HP. 010-2580-3744
FAX. 062-681-5586

*버스운행 : 두암동 → 문흥동 → 오지 → 일곡 → 양산동 → 침탄지구 → 신창지구 → 신가 → 운남지구 → 월곡동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062-605-1114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인문	신학과	20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8	7	5
	유아교육과	10	7	3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5	-	5
총계		72	31	39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수시 1차모집 : 원서접수 : 2013. 9. 4(수) ~ 13(금) · 전형일 : 2013. 9. 26(목)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 2013. 11. 11(월) ~ 15(금) · 전형일 : 2013. 11. 21(목)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3. 12. 19(목) ~ 23(월) · 전형일 : 2014. 1. 3(금)

■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조로 36

www.kwangshin.ac.kr